



(사)대한제과협회 제24대 중앙회장 선거

김영모 회장 ‘소신 리더십’ 승리

지난 2월 24일 (사)대한제과협회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열린 제24대 회장선거에서 김영모 회장이 경쟁자 김서중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협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162명의 선거인단이 지난 2년 동안 김영모 회장이 보여준 ‘소신 리더십’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김영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을 위해 눈과 귀를 활짝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_김미선 기자·사진_주현진



한국 제과업계를 이끌어갈 (사)대한제과협회장에 김영모 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사)대한제과협회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영모 후보가 87표를 얻어 53표에 그친 김서중 후보를 누르고 3년 임기의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전대 회장을 역임한 김영모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중앙회장으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난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점을 (사)대한제과협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서중 후보의 프랜차이즈 제과점 제휴카드 금지 등의 공약이 현실성에서 떨어진다느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김영모 회장의 대세론에 탄력을 붙이는 효과를 냈다.

당선 후 김영모 회장은 “어려운 시대 협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2년 동안 협회의 기틀을 바로 잡는데 치중했다면 앞으로 3년 동안 눈과 귀를 크게 열고 회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우를 줄 아는 진정한 회원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모 회장은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프랜차이즈 제휴카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이번 경선에서 함께 땀 상대편 김서중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



1 김영모 회장이 앞으로 3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협회의 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유현식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모 회장에게 당선패를 전달했다. 2,6 김영모 후보(사진 2)와 김서중 후보(사진 6) 후보에게는 각각 20분간의 정견발표 기회가 주어졌다. 김영모 후보는 '현실성 있는 리더십'을, 김서중 후보는 '지역제과점의 단결'을 각각 내세웠다. 3,5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 온 대의원들은 마지막까지 후보 선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4 16년만에 경선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87%를 기록했다.

서 앞으로도 (사)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한 전체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16년 만의 경선, 치열했던 선거현장

이번 (사)대한제과협회 회장 선거는 김영모, 김서중 등 2명의 후보가 각각 입후보해 지난 16대에 이어 16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져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하기 전부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들였다. (사)대한제과협회는 1월 14일 이사회를 거쳐 유현식 중앙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원활한 유세 진행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애초 임원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됐던 윤충기 위원은 김서중 후보의 유세지원을 이유로 위원직을 중도 사퇴했으며, 위원회가 중앙회 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자 김서중 후보 측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안전 자체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날 선거는 선거인단 총 162명 가운데 141명이 참가해 8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6년만의 경선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400여 명에 달하는 업계관계자들이 개표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사)대한제과협회 제24대 김영모 회장은 앞으로 이 같이 뜨거운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김영모 회장은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중앙회와 지회·지부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회 발전을 위해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앙회장 선거 이후 치러진 감사투표 결과 서울·경기는 양경보 수원시지부장이 지방은 이기남 광주광역시지회장이 각각 2명의 후보자를 물리치고 2년 임기의 중앙회 감사로 당선됐다.

제24대 중앙회장 선거 개요

제24대 중앙회장 선거는 16년 만에 2명의 복수후보가 출마한 경선으로 치러졌다. 지난 2년 동안 (사)대한제과협회를 이끌어왔던 김영모 회장이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소신 리더십'을 내세워 무난하게 당선됐다.

- 선거일 : 2005년 2월 24일 (목)
- 선출방법 : 대의원회의에서 간접 선출
- 선거인수 : 162인
- 투표자수 : 141인(투표율 87%)
- 선거결과 : 후보자별 득표상황
 김영모 후보 87표
 김서중 후보 53표
 무효 1표